

‘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7.13. 연합뉴스 「‘부동산’ 빠지는李정부 첫 세법개정, 주식배당 분리과세 최우선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.”, “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‘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,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문건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배 (ooh471@korea.kr)